

# 한동훈, 이번주 수도권·PK·호남 순회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천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혐지·격전지 찾아 민심 공략 오늘 고양·영등포 찍고 부산·김해로... 15일 호남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전국 '혐지'와 '격전지'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산·경남 등 PK,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지역구를 순회한다고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주에는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경기 수원, 성남, 용인을 차례로 찾았다. 한 위원장은 오는 11일 경기 고양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현재 1석도 없는 '혐지' 고양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고양갑), 김중혁 당 조직부총장

(고양병), 김용태 전 의원(고양정)을 공천했다. 12일에는 고양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서울 영등포와 양천을 방문한다. 영등포갑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 영등포을은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양천갑은 한 위원장이 영입한 구자룡 비대위원, 양천을은 오경훈 전 의원이 공천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후 남쪽 지방을 향한다. 14일에는 '낙동강 벨트' 부산 북구, 경남 김해를 찾아 서병수 의원(북구갑), 조해진 의원(김해을) 등 당의 요청으로 '혐지'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자갈밭' 호남을 찾는다. 전남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뛰는 순천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박은식 비대위원과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이 각각 갑·을 후보로 확정된 동구·남구를 방문하고, 전북에서는 정운천 전 의원 등이 공천된 전주를 찾은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경기 평택에서 한무경 의원(평택갑),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평택을),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을 지원하며 한 주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 예정

### 현역 민형배와 승부... 출마 지역구·공약 등 발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광주 광산'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 녹색정의당 김용재 전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진보당 전주연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사무처장과 겨루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권 심판 방안 청산'이라는 주제로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여러분께 드리겠다"며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산은 KTX 시대 광주의 입구이며 출구, 광주의 관문이다"며 "광주와 광산을 도우며 지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과 함께 ▲군공항 이전 지원 ▲인공지능 산업 2단계 사업 지원 ▲광주·전남 협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광주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 한다.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진자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광주는 다른 광역도시보다 발전이 더디다. 경제가 약하고 정치마저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광주와 호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의 유망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의한 승부 역시 주목된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 의원의 경쟁은 이 대표에게 상징적으로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고향인 영광이 광주 광산을 지역구와 가장 붙어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시중 전 청와대 선인행정관, 김학실 전 광주시의원 등 광산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했거나 지지 기반을 갖춘 이들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점도 이 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물갈이' 바람이 분 것도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 선택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경선 결과를 발표한 7곳 중 민 의원 지역구인 광산을 제외한 6곳의 현역이 탈락했다. 이 대표가 민 의원과 맞붙어 당선에 성공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탈락한 그에게는 지지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의 역시 이 대표와의 맞대결로 정치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민주당 대표, 총리 등을 지낸 이 공동대표와 경쟁해 승리를 거머쥔 경우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동시에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총선 브리핑

## 정진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회피 막을 것"

### 민주,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출마하는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10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각종 예외규정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차원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의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신규 채용 인원의 상당수



를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예외규정'을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3년도 일반 정규직 총 신규 채용 인원 266명 중 청년 채용 236명, 여성 65명, 장애인 8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은 총 149명으로 신규 채용 인원의 56%에 달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에 해당하는 '이전 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7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3.9%에 불과하다. /김혜나 기자 khn@

## 김정현 "금호타이어 국가 주도 이전·부지 활용"

### 국힘,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정현 예비후보는 10일 "광주 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송정역철도 이용객이 1일 4만명, 연간 5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광주 최대 관문인 송정역세권을 거점으로 도시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지 면적만 12만평에 달하는 금호타이어를 국가 주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송정역 근접 지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신설



해 신도시 형성과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이를 뒷받침 하도록 전문 예술 공연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호남은 전문 예술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라며 "광주에서는 오페라나 월드스타 BTS 공연 등을 보기 어려워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역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자본 유출과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전문 예술 공연장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신당들, 투표용지 '기호 싸움' 치열

### 개혁신당-새미래 각 4석, 조국혁신당-자유통합당 각 1석...추첨 가능성

4·10 총선을 앞두고 원내 소수 신당들의 투표용지 '기호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현역 의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해야 한다. 10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 순으로 결정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이면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그러나 신생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가 없기에 당 대표나 대리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의석수는 현재 4석으로 동일하다. 개혁신당 현역은 양향자·이원욱·조웅천·양정숙 의원이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박영

순 의원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홍영표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이 4명으로 늘었다. 이대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현역 의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받아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전 광훈 목사의 자유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황은하 의원이, 자유통합당은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합류해 1석씩을 확보한 원내 정당이 됐다. 이들 정당도 추가로 현역 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기호 경쟁을 벌인다.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의석이 156석인 민주당이 1번, 114석인 국민의힘이 2번, 6석인 녹색정의당이 3번이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용 대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